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합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rb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56호 현대불교
2007년 12월 5일(음력 10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19

한마음의 활나생활이 그대로 역력하게 돌아간다!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지려면...

문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미혹한 중생으로서의 삶은 어려움도 많고 넘어서야 할 일도 무척 많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임시 문제, 취업 문제,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잘 처리하야 하고 물질로만 치달으면서 정신적은 등한시하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교마저 없어질 판입니다. 스님,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현실 사회의 문제점들을 관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밝고 건강해질까요?

답 우리는 일체 과거생이나 현재생이나 미래생을 포함해서 삼심(三心)을 일심(一心)으로 귀합을 시켜서 지금 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현 사회의 모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관해야 할 일들이 지금 급하게 닥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첫째는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과 더불어 폭넓게 그릇이 크게 만들어져야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받아들였으면 바로 세계적으로 내보내야 할 지혜모음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통하게끔, 통해서 그렇게 되게끔 이렇게 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 학생들의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자기의 기상이 다 그냥 메달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원력을 상실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거 하나 때문에 전체로 자기가 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용도를 다 상실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대로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대비 대책을 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문은 넓히고 나오는 문은 좁힐 수 있도록 관하시면 어떻까요?

셋째, 지금 사업자들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가는 형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좀 더 마음이 넓지 못한 까닭인지 몰라도 모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제한을 조금 풀어줬으면, 외화도 어떠한 문제점만 거론해서 딱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넓혀 주면 사업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또는 조그만 사업들을 하는 구성체를 그런 사업자들이 뿔뿔 뿔쳐서 돌아 주는 마음과, 정부에서 좀 돌아 주는 마음이 한 나라에 한마음으로써 구성이 된다면 그것도 앞으로 발전이 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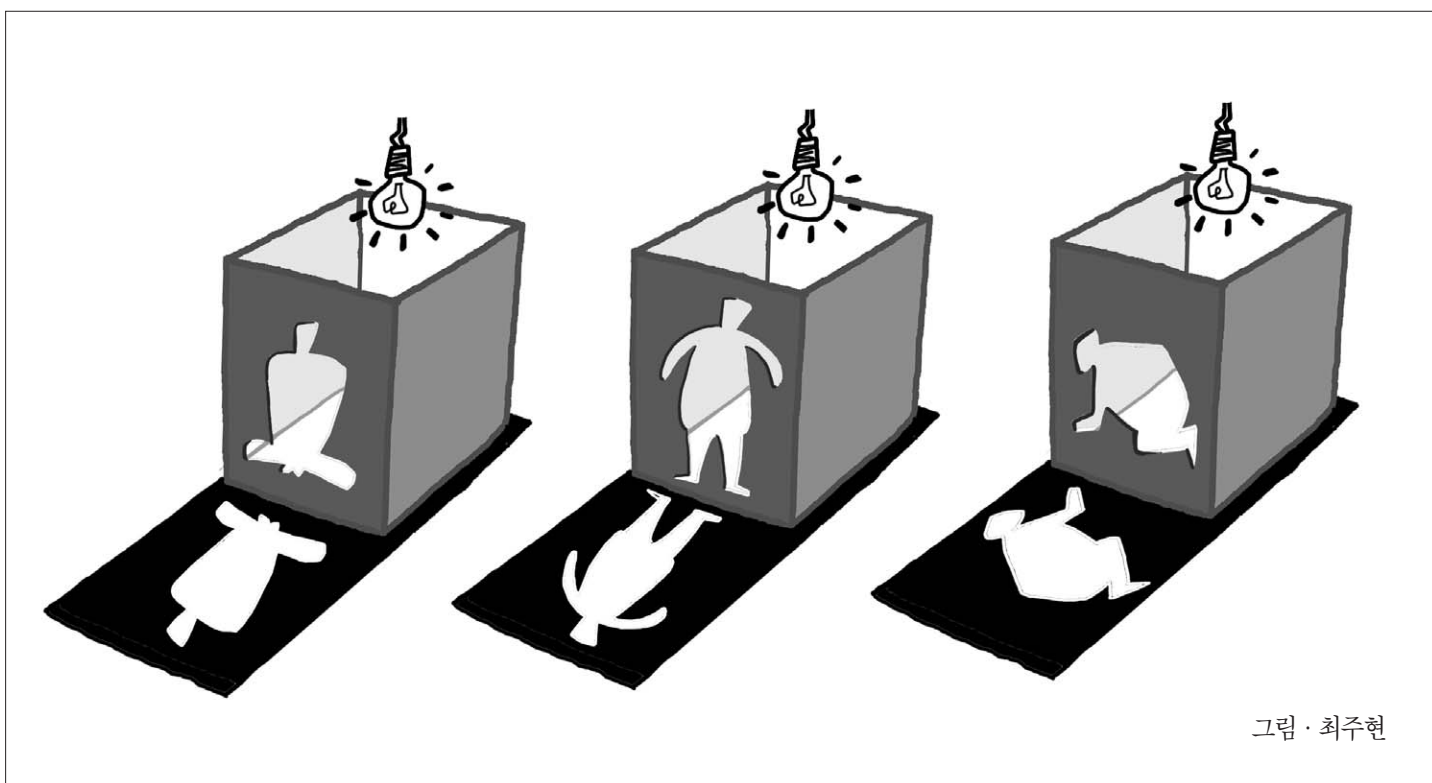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나라에 경제 혼란이나 또는 어떤 타격이라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또 넷째, 사람들이 모두 정신계를 추구하고 가야 할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물질계에서 해매고 온통 물질계로만 이문을 가지고 나간다면 절대로 이것은 성립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 것이 나타나느냐? 모든 젊은이들이 늙었듯이 젊었듯이, 여자든 남자든 막론하고 자기를 돌볼 줄을 모릅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모습이 화려하고 아주 특이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없는 처지니 이 마음의 공부를 모두 할 수 있게끔 되면 좋지 않을까요. 즉 말하자면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정신계에서 물질계로 이렇게 돌 아나고, 선과 교 어떠한 것을 막론해 놓고 돌 아나고 이 도리를, 진리로 구성된 전체의 귀합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이런 공부를 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선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모두 관해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찾지 말고, 배를 저어 가면서 바깥으로 살려 달라고 하

지 말고 안으로 '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다스려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해 나가는 공부를 제대로 하게끔 하면, 도둑이나 사기나 또는 강도나 어떠한 불상사도 아마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다면 꼭 그렇게 해서 지켜보시도록 하세요. 모두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면 나와 내가 돌 아나고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될 것입니다.

이직도 실천이 부족하네

문 스님께서는 매일 일이 끝나면 저녁에 30분씩 주인공을 관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봤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가끔씩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부처님 얼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못하면 그 이튿날 출근할 적에 차 속에서라도 꼭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천이 부족해서 아직도 못 깨닫는 걸로 저 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답 술을 마신 사람은 누굽니까? 술을 마신 사람도 선생님이고 또는 그렇게 주인공을

관하는 것도 선생님입니다. 나는 주인공을 이렇게 관하라고 합니다. "주인공, 네가 있으니까 네가 있다는 증명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너도 없고 내 모습도 없을 것이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있으니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육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근본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져야 육을 형성시킵니다. 지금만 육의 부모를 두고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억겁을 통해서 아마 생존 경쟁을 했을 겁니다.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실랑이를 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그렇게 가깝게 두고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 주인의, 즉 말하자면 종입니다. 종, 종문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종입니다. 주인과 종이 돌 아나고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공부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을 이

를 해서 부(父)라고 하고 자기는 자(子)라고 합니다. 자와 부가 상봉을 해야만이 그때서부터 무의 세계로, 유의 세계로 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어요. 왜? 화두를 마음이 준 겁니다.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이름이 없으면 찾다 안 찾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어느 스님네고 마음을 주었지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 자기 영원한 근본이 물 한 방울이라고 치면 그 영원한 근본을 돌 아나고 수만 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을 지니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영이죠. 그러니 그대로 한마음 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한마음 가운데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놓는 것입니다. '내고 들이는 것이 바로 너니까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놓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움직여가게 하는 것도 너, 잘 되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 잡자고 깨어나게 하는 것도 너, 일체가 다 너죠. 너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부(父)라고 해도 좋고, 자기가 친근하게 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방편을 대도 좋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보살들을 자기가 생산시켰습니다. 한 마음으로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전부 보살로 화하게 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게 만들고, 낮고 높고를 떠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응신이 돼 쫓아라는 뜻에서 천백억화신이라고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으로 나투어 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깐 거기다가 관할 때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내가 일이 할 게 많고 바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느 시간을 정해 놓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망상을 끊지 않고 그대로 참선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끊지 않고' 하는 것은 망상에 걸리지 마 시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깐 그렇게 열심히 해 보십시오.

20면으로 계속

天機秘傳
2008년 **戊子年** 목자년
핵심 택일지

365일 매일 한장씩 한눈에 훑어 볼 수 있는
상당자가 왜왔는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특수래정비법 공개...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핵심 인연래정비법에 대하여
당일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
그 사람의 현재 마음과 運을 짚어보는 법

- 매일운세吉凶판단법
- 당일 일상행사吉凶표
- 자신의 재수대동 방향자리
- 결혼 약혼 택일법
- 장례행사 이장의吉凶표
- 日辰法 보는 조건표
- 建除十二神 정국도와해설
- 임신한 아기 男女건강법
- 상당자 吉凶 來占法
- 당일 불공, 고사, 기복법
- 이사방위 吉凶표
- 건축, 상량, 개업일 판단법
- 月日辰 해당 身親조건표
- 二十八宿 정국도와해설
- 황홀도 吉凶표와해설
- 생기복득 吉凶표

지금 바로 펼쳐보십시오!

사주명리 한방치방학 4x6배판/徐昇泰/음양정본 1권880쪽, 1권680쪽/각 권 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일,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복/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정복/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대권의길 명당에 있다

명당이 대권주자를 만든다 / 대권주자가 되려면 명당을 얻어야 한다 / 명당을 얻으려면 명당자를 만나야 한다

지자는 제주도 의 표소 사적인 일인 연남 자택에서 수백억 가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감정할 수 있다. 또 주택 사적인가 평면도만 있으면 자택에서 수백억 찾아낸다.

대권의 길 명당에 있다
지리학의 근원(根源)
자연과 인생 / 지기론(地氣論)
수기론(水氣論)
동기론(洞氣論)
산세론(山勢論) / 용역개론(龍脈論)
명지론(平地論) / 지남철론(指南針論)

김용식 지음 / 신국판 / 204쪽 / 원가 20,000원

羅經과 立向法

새로운 풍수학의 획기적 지침서

나경과 입향법을 알면
부와 귀를 얻을 수 있고 부와 귀를 얻는 길을 쉽게 풀이한 책이다.

음택은 자운개로 자연의 흐름을 포괄적으로 땅의 기운을 찾아 길을 알고 양택은 8만여개로 생활의 유효성을 찾아 행복의 길을 연계 하였다.

풍수지리는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여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조상의 묘지를 좋은 자리에 모시면 조상의 음덕으로 발복(發福)한다고 믿으니 비록 타고난 운명이 불행해도 조상을 吉地에 안장(安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본다.

신국판 / 82쪽 44평형 지음 / 20,000원

삶의 고통을 뜨거운 참회로
빛을 밝히는 감동의 편지

잘못된 시간을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올리는 효편지
종교에 귀의해 지나온 잘못을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희망의 편지.

저도 그 어디에서 아버지를 혹시 마주친다 해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겠습니다. - 정주여자교도소 김00

당신이 없는 지금 정말 보고 싶고 '어머니'라 부르고 싶은 욕망으로 새하얀 종이 위에서 당신을 그리워 해봅니다. - 수면 1354 조00

새롭게 받은 '무공'이라는 범명처럼 모든 것을 비우고 남은 삶을 성찰하며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 광주교도소 1799 나00

지금도 첫 108배의 수행은 잊혀지지 않는다. 수용생활을 하면서 그때처럼 기쁘고 환한 감정을 느끼는 적은 없었다. - 여주교도소 527 재00

길, 누군가와 함께라면 2

해철 엮음

여시아문 02|2004-8200
신국판 | 9,000원